

# 데이터 사회에 작동하는 포털의 공간정치학

## -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를 중심으로

김민영\*

1. 서론
2. 미디어 플랫폼의 배제된 욕망
3. 신화적 상상의 허위성
4. 결론

### 국문초록

우리는 수많은 데이터가 존재하는 인터넷 공간에 접속하기 위해 포털이라는 관문을 거친다. 포털은 데이터 사회에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이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그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이 글은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서사적 배경이 포털(기업)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데이터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산물인 포털 공간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검블유>에서는 국내 양대 포털 기업인 '유니콘'과 '바로'가 자사 서비스 사용자를 늘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바로'로 이적한 배타미는 점유율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광고, 웹툰 작가 영입, 메인 화면 개편 등의 전략을 시도한다. 이때 드러난 스펙터클한 포털 이미지의 이면에 집중하면, 포털의 은폐된 작동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즉, 포털이 새로운 경제체

---

\* 중앙대학교 다빈치교양대학 강사

제에 신속하게 편입되어 신자유주의의 실상이 스며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또한 포털의 여러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이다. 포털은 고유의 알고리즘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한다. <검블유>는 유력 대선 후보의 실검 삭제가 극 중 갈등의 시발점이다. 이는 알고리즘이라는 수학적 원리의 작동 방식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것이 아니며, 정치와 자본 세력에게 끊임없이 기만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검블유>는 사회적 구성물로서 포털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현 시대는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은 인터넷과 우리의 세계를 잇는 포털(기업)의 스펙터클에 은폐되고 숨겨져 있는 작동원리를 볼 수 있는 해안을 지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데이터 사회, 포털, 공간, 알고리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 1. 서론

우리의 시대는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플랫폼, 알고리즘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바탕으로, 그간 별도의 영역이라 판단했던 문화와 기술을 하나로 결합·융합시키며 인간의 삶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그중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중추라 할 수 있는데, 외부의 간섭없이 사회 구성원 간의 정보 흐름을 촉진하도록 구성된 인터넷을 이용하는 행위 자체가 빅데이터의 근원이 된다. 빅데이터는 인터넷만 연결된다면 모든 스마트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쌓인다.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관심사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디지털 웨어러블 기기로 생체 정보를 저장하며 스스로 데이터를 생산하기도 하며, 자신의 감정

이나 정서를 인터넷 공간에 내보이는 등 인터넷 영역에 최적화된 삶을 향유하고 있다. 그들은 외부의 강요가 아닌 자발적·적극적으로 거대한 데이터 자원을 제공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사회 구성원이 인터넷 공간에서 유사 이래 인류 문명 기록만큼의 방대한 데이터를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sup>1)</sup>

이로써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인간 상징 언어를 통한 담론적 발화나 상징 교환 데이터뿐만 아니라 신체를 둘러싼 분위기나 감정선의 분출 데이터, 그리고 신체의 생체리듬과 시·공간 정보 등에 대한 자가생산된 데이터가 매순간 상호 뒤섞이는”<sup>2)</sup> 데이터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의 데이터를 “사실의 기록, 1차 자료, 자료의 집적이라는 표면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을 넘어, 특정 알고리즘을 통해 일정한 의미를 창출하면서 삶과 신체 내부로 침투해 들어오는 권력의 측수이자 저항의 무기”로 이해한다면, 데이터는 “사물의 단순 모사와 기록의 흔적을 넘어 사물을 일정한 형태로 만들거나 변형시키는 물질성으로 전화하는 역동성”<sup>3)</sup>을 지니고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추적 요인이 된다. 데이터가 비가시적인 영역에서 홀대를 받았던 과거의 위치를 탈피하고 끊임없이 갱신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힘을 지니며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sup>4)</sup>

1) 구글의 전 CEO 에릭 슈미트는 “역사가 시작된 이래 2003년까지 인류의 의사 전달 내용을 모두 기록한다면 50억 기가바이트 정도 된다. 지금 우리는 단 이를 만에 그만큼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엘리 프레이저, 『생각 조종자들』, 이현수·이정태 옮김, 시공사, 2011, 17쪽.) 이 책이 2011년도에 출판된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그 이상의 데이터가 생성 및 축적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이광석, 「데이터사회의 형성과 대항장치의 기획」,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30쪽.

3) 김성일, 「산업사회와 데이터사회에서 작동하는 물신주의」,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99쪽.

4) 이광석, 「데이터사회의 형성과 대항장치의 기획」,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28쪽.

이러한 데이터가 한데 모여 사회 구성원들에게 제공되는 대표적인 공간이 ‘포털(portal)’이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창을 열면 누구나 거쳐 갈 수 밖에 없는 관문 같은 곳”(13화)<sup>5)</sup>으로 인식되는 포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관련서비스와 콘텐츠를 한 공간에 집적시켜 놓은 인터넷 이용을 위한 통합 사이트”<sup>6)</sup>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포털이라는 플랫폼에 집중되면서 포털이 통합미디어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것이다. 포털은 인터넷 사용자를 그곳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인터넷상의 거의 모든 영역의 콘텐츠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해당 포털의 주력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을 포털로 끌어들이면, 이들은 자사 사이트에서 각자의 기호나 욕구에 맞는 다른 서비스나 콘텐츠를 사용하게 된다.

포털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검색’이다. 국내에서는 포털이라는 용어가 익숙하지만, 해외에서 이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용어는 ‘검색엔진(search engine)’이다. 즉 포털이 인터넷 콘텐츠 유통에서 절대적인 우위의 영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핵심은 사용자가 원하는 콘텐츠의 검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sup>7)</sup> “검색 결과의 첫 페이지에 뜨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sup>8)</sup>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검색은 포털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서비스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포털은 고유의 알고리즘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만족할 만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포털에 사용자를 오래 잡아둘 수 있는 명분을 만

5) 이 대사는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의 13화에서 나온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사를 직접 인용할 때 회차만을 밝히는 것으로 하겠다.

6) 백선기·최민재·김위근, 『인터넷 공간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64쪽.

7) 김위근,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6, 한국언론정보학회, 2014, 7쪽.

8) 크리스토프 드뢰서,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전대호 옮김, 해나무, 2018, 73쪽.

든다. 검색 서비스와 포털의 여타 서비스, 콘텐츠가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사용자를 포털에서 계속 머무르게 하는 것은 그만큼 포털의 지배력이 강화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물론 사용자가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를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포털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혹은 관심이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다른 경로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려는 시도 자체를 차단한다. 그렇기에 포털은 자사의 사이트에 사용자들이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즉 ‘점유율’<sup>9)</sup>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전략으로 이용자들에게 접근한다.

TV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이하 <검블유>)<sup>10)</sup>는 포털사이트를 배경으로 삼아 데이터 사회에서 포털의 막강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기에 주목을 요한다. 연구자들과 비평가들은 <검블유>가 기존의 드라마와는 달리 주체적이고 진취적인 여주인공을 호명하여 그들의 사회적 위치와 우정, 연대를 보여줌과 동시에 전도된 남녀관계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sup>11)</sup> 이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캐릭터의 특성에 초

9) 2022년 상반기(2022.01.01.~2022.06.30.) 포털사이트 종합 점유율은 네이버(60.14%), 구글(29.21%), 다음(5.24%) 순이다. 네이버는 자사 콘텐츠만 검색되도록 폐쇄적인 정책을 고수한다. 여전히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때 80%를 넘었던 기억이 있는 네이버가 60%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 그들의 정책이 더 이상 사용자들의 발길을 오래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http://www.internettrend.co.kr/trendForward.tsp> 참고. 2022.08.21. 최종 검색.)

10) 권도는 극본, 정지현·권영일 연출, tvN, 16부작, 2019.06.05.~2019.07.25.

11) 김미라, 「포스트페미니즘 드라마의 서사와 정치적 함의」, 『한국극예술연구』 6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김숙현, 「포스트모던한 여성 이미지와 로맨스의 갈등과 타협」,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7, 한국영상학회, 2019.

박주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다 걸크러쉬야?〉, 『일다』, 2019.08.16. (2022.08.13. 최종검색)

박현숙, 〈‘검블유’ 리얼 포털 업계 종사자 “포털의 본질 짙은 에피소드에서 감동”〉, 『스포츠 경향』, 2019.07.02. (2022.08.13. 최종검색)

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검블유>의 서사적 특징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내 방 창문보다 더 많이 보는 창”<sup>12)</sup>인 포털의 검색창을 통해 원하는 데이터를 얻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인터넷 사용자는 전무하다. <검블유>는 현실과 인터넷 영역의 통로로서 데이터 사회에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포털’이라는 공간을 전면화 하여, 포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양상을 내러티브에 담아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은 중심 캐릭터의 특징에 집중했던 그간의 시선에서 벗어나 <검블유>의 서사적 배경이 되는 ‘포털’이라는 공간 자체에 집중하고자 한다.

기획의도에서 밝히듯, <검블유>는 거대 포털 기업이 ‘인터넷 영역을 차지하는 비율’, 즉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러티브가 주축이 된다. 데이터의 우주인 인터넷은 사회 구성원의 일상 경험은 물론이고 미래에까지 깊이 통합되어있다. 그들은 인터넷 영역에 드나들며 “서로가 진정으로 ‘거기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이를 통해 인터넷 영역은 “형태, 질감, 윤곽, 깊이, 세부사항이 이미 주어져 있는, 간단히 말해, ‘실재(reality)’”<sup>13)</sup>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공간은 중립적인 범주이거나

신규진, <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젠더 미러링’ 콘텐츠, 논란은?>, 『동아일보』, 2019.07.30. (2022.08.13. 최종검색)

이로사, <주류 서사를 그대로 뒤집었더니, 본의 아니게 ‘여탕’이 됐네>, 『경향신문』, 2019.06.21. (2022.08.13. 최종검색)

이수연, <‘검색어 WWW를 입력하세요’ 여심을 사로잡은 드라마!>, 『스타뉴스』, 2019.06.14. (2022.08.13. 최종검색)

하재근, <여성주의 열풍, 한국 드라마를 바꾸다>, 『시사저널』, 2019.07.27. (2022.08.13. 최종검색)

한숙인, <‘남자친구’ 박보검 VS ‘검블유’ 장기용, 페미니즘 남주의 진화>, 『셀럽미디어』, 2019.06.28. (2022.08.13. 최종검색)

황진미, <드라마로 먼저 온 한국 사회의 미래>, 『한겨레』, 2019.06.21. (2022.08.12. 최종검색)

12)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공식 홈페이지의 기획의도. <http://program.tving.com/tvn/searchwww/11/Contents/Html>.

객관적이고 순진한 영역이 아니라 사회적인 구성물로서 사회적이고 물질적인 실천을 통해 구성”<sup>14)</sup>되기 때문에, 데이터 사회에서 ‘포털’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사회적 산물로 읽어낼 수 있다. TV드라마가 현 사회 구성원들의 구성물이자 이들의 선택, 문화적 결정, 사회적 압력의 결과라면,<sup>15)</sup> 포털이라는 공간을 배경삼아 <검블유>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사건의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유의미하리라 기대된다.

## 2. 미디어 플랫폼의 배제된 욕망

대한민국이 ‘정보화 강국’, ‘인터넷 강국’이라 불리며 세계적으로 도약한 시점은 약 15년 전, 즉 2000년대 중반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인터넷 인프라의 이미지가 구축된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다. 물론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는 기술적인 경쟁력을 갖췄는지의 여부는 세부적인 지표의 확인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초고속 통신망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했고 그 결과로 단기간에 ‘인터넷 강국’의 대열에 들어선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sup>16)</sup>

인터넷 출발점으로서의 포털은 초기에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시 들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검색 기능보다는 자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용자는 제공받는 서비스가 불편하면 가차 없이 다른 포털로 이동하므로, 포

13) 메리 차이코, 『초연결사회』, 배현석 옮김, 한울애플러스(주), 2018, 93쪽.

14) 최효찬, 『일상의 공간과 미디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60쪽.

15) 존 피스크·존 하틀리, 『TV 읽기』, 이익성·이은호 옮김, 현대미학사, 1997, 21쪽.

16) 강병준·류현정, 『구글 vs 네이버 검색대전쟁』, 전자신문사, 2008, 14~18쪽.

털은 인터넷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구축해야 했다. PV(페이지 뷰)와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검색은 기본이고 이메일에서 블로그와 카페,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용자를 최대한 오랫동안 포털에 남게 할 수 있는 전략 구사는 ‘점유율’ 경쟁에서 승패를 결정지었다. 따라서 포털 업계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는 인재가 곧 최우선적 자산이자 경쟁력임을 인지하고, 직원들에게 실적 성장을 바탕으로 연봉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세세한 부분의 복지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직원들이 회사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꾸준히 추진하며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결국 포털은 여타의 기업보다 ‘사람’의 창의성과 개발 역량을 중요시하는 기업 문화 덕분에, “개방, 중립, 평등 그리고 진보의 함의”<sup>17)</sup>를 지닌 공간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 자본과 정보가 집약된 포털은 <검블유>에서 언급된 포털윤리강령 제1조의 내용대로 “가장 진보하며 참여적인 광장”(2화)으로 탈권위적인 성향이 두드러진 매개자가 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포털의 특성을 바탕으로 <검블유>는 국내 양대 포털 기업인 ‘유니콘’과 ‘바로’가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내러티브를 재현한다. 상대적으로 ‘유니콘’은 보수적 경향을 띤 기업으로, ‘바로’는 진보적인 기업으로 그려진다. ‘유니콘’은 전술한 포털 기업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다. 기업 대표보다 대기업 KU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유니콘’은 KU 며느리인 송가경(전혜진 분)의 선택이 곧 ‘유니콘’의 결정이 된다. KU 대표 장희은(예수정 분)이 ‘유니콘’을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며 부당한 요구를 했을 때, 송가경은 이를 묵인함으로써 친정과 자신을 보호한다.

17) 김동원, 「플랫폼 담론과 플랫폼 자본」,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84쪽.



‘유니콘’ 임원으로서 점유율 1위 자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전략을 준비하거나 시도하지 않고, “정의든 불의든 이기는 수단이 되면 뭐든”(9화) 행한다. KU와 절연하고 대표직에 오른 후에도 그녀는 “보수적이고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세련”(15화)된 이미지를 고수하기로 결정한다. 반면, ‘바로’의 지향점은 ‘유니콘’과 정반대이다.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추구하고 직급 대신 영어이름을 부르고 직원들 간에 존댓말을 사용하며 강제적인 회식 문화도 부재한다. 나아가 ‘바로’ 직원들은 그들이 몸담은 기업의 대표가 민홍주(권해효 분)라는 사실에 굉장한 자부심을 갖는다. 민홍주가 사퇴한 직후 상당수의 직원들이 동요하고 심지어 80% 이상의 직원들이 그의 복귀 서명에 참여하는 등 민홍주는 ‘바로’라는 기업 그 자체를 대표하는 수장이다. 즉 ‘바로’는 수평적이고 탈권위적인 포털의 이상적 기업으로 보여진다.

42% 점유율을 차지한 포털 2위인 ‘바로’는 배타미(임수정 분)를 영입함으로써 52% 점유율을 보유한 ‘유니콘’과의 점유율 전쟁에서 이기고자 한다. 배타미는 대기업 KU의 며느리인 송가경이 시어머니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며 친정권적 행위를 하는 유니콘에서 벗어나, 본인이 기틀을 다진 포털윤리강령<sup>18)</sup>을 이행할 수 있는 ‘바로’에서 점유율 1위라는 목표를 이루

18) <김블유>에서 언급한 ‘포털윤리강령’은 다음과 같다.

제1조 포털은 가장 진보하여 참여적인 광장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털은 사용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2조 포털은 조작하지 않고 은폐하지 않는다. 이를 해치려는 모든 압력과 침해, 제한, 차별 등으로부터 사용자의 권리를 적극 수호한다.

제3조 포털은 사익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

제4조 포털은 포털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관리, 감독하며 책임을 진다. 절대 침묵과 회피로 묵과하지 않는다.

제5조 포털의 영향력은 사용자에게서 오고 사용자로 향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한 이득을 도모하지 않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 배타미는 ‘유니콘’이 아닌 ‘바로’였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점유율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바로’의 초창기 멤버인 차현(이다희 분)이 ‘유니콘’ 성향이 엿보이는 그녀의 전략을 납득할 수 없어 “여긴 바로예요. 유니콘이 아니라”(3화)고 막아서기도 하지만, 배타미는 팀원들과 대표가 인정한 합리적인 전략으로 문제적 상황을 해결하며 진취적이고 전문적인 여성으로 그려진다. 때문에 배타미가 기존 드라마의 여성 캐릭터를 벗어나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여성으로 묘사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상의 호의적인 평가는 포털(또는 포털 기업)이라는 공간이 신자유주의적 착취를 철저하게 감추며 숨기고 있음을 포착하지 못하게 한다. 이를 염두에 두면 배타미는 기존과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폭력과 전쟁을 의미”하는 경쟁이 “일상생활의 모든 틈바구니에 있는 전쟁기계를 은폐”<sup>19)</sup>한다는 비포의 의견을 빌리면, 배타미를 기존의 TV드라마에서 내세운 여성 캐릭터에 비해 진보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로만 볼 수 없다.

기호자본주의는 정신적 에너지의 끊임없는 착취에 의존하며 경쟁은 불안정 노동의 영역에 존재하는 일반적 [사회]관계 형태이기 때문에, 극심한 이행기였던 지난 30년 동안 정신적 고통은 사회의 유행병이 되어버렸다. 접속의 세계에서 경쟁이란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자극이나 신경 자극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애정에 쏟아부을 수 있는 시간의 축소, 외로움, 실존적 고통 그에 따른 분노, 공황, 우울증을 의미한다. (중략) 이것이 지난 수십년 사이에 사이버문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지지, 시장 이데올로기의 전지구적 헤게모니 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등장한 네트 경제의 어두운 이면이다.<sup>20)</sup> (강조는 인용자.)

19)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봉기』, 유충현 옮김, 갈무리, 2012, 102~103쪽.

20)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장유리 옮김, 난장, 2013.

그에 의하면, 배타미는 강박적인 행동자극들로 가득한 경쟁의 세계에 내몰려 스스로를 착취하는 인물로, 진취적이고 전문적인 여성이라는 긍정적 의미에 은폐되어 보이지 않은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배타미의 ‘바로’로 이적은 오로지 “유니콘 제끼고 바로 1위 만드는”(2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그 결과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좌절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고통받으며 “나는 나를 실현한다는 믿음 속에서 자발적으로 나 스스로를 착취”<sup>21)</sup>한다. 그녀를 경쟁의 세계에 매몰되게 만든 것은 그녀가 6개월 안에 성과를 보여야만 ‘바로’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이다. 그녀는 “바로의 1위 탈환을 위한 TF팀”(2화), 즉 애초에 ‘일시적으로’ 구성되어 점유율 1위의 성과가 달성되면 해산되는 수순을 밟는 TF팀을 이끌고 있다. 게다가 TF팀원들은 야근 없는 회사를 만들고 싶은 민홍주의 바람과 달리, 중차대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전면에 나선다. ‘바로’가 지향하는 바에 반하는 것이지만, 이들의 모습은 “자유의 착취가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sup>22)</sup>하는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정확히 반영한다.

점유율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배타미는 부단히 이슈 물이를 한다. 커뮤니티에서 ‘바로 뷰’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이슈로 갑론을박하게 만들고, 웹툰 작가를 섭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약점이나 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웹툰 작가 김백작이 “인기가 많고 조회 수도 높고 바로가 유니콘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7화)므로, 그가 제자의 작품을 뺏었다는 윤리적인 문제는 그를 ‘바로’로 영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못한다. 배타미의 “관심은 누구 데려와야 유니콘을 이길 수 있느냐”(7화)

12쪽.

21) 한병철, 『타자의 추방』, 이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 62쪽.

22) 한병철, 『타자의 추방』, 이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 29쪽.

일 뿐이다. 그녀는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는 고독한 피로”가 축적되어 스스로를 “극단적 피로와 탈진 상태”<sup>23)</sup>로 끊임없이 밀어 넣는 삶의 방식을 선택한다.

따라서 이 전쟁에서 ‘유니콘’을 이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배타미가 시도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점유율 1위를 차지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바로’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하면서 ‘바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켰다는 의미이다. 이는 최종적으로 ‘바로’라는 기업의 수익 창출과 연관된다. 사용자에게 포털 체류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광고 노출 빈도가 높아짐에 따른 기업으로서 ‘바로’의 이익에 낙관적인 신호이다. 다시 말해 ‘바로’의 점유율 1위 선점은 배타미 개인의 목표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것의 최종 목적은 ‘바로’라는 기업으로서의 이익 추구이다. 포털이 “자본의 끊임없는 이윤 창출의 도구”로서 “공간의 상품화”<sup>24)</sup>가 된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그렇기에 배타미가 ‘바로’에서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최초로 시도한 전략이 “검색에 대한 이미지를 선점”하기 위해 “누가 봐도 노린 게 분명한 비교광고”(3화)라는 점은 눈여겨보아야 한다. 그녀는 ‘바로’가 점유율이 낮아 ‘유니콘’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적다는 약점을 역으로 이용해, 사용자들에게 클릭 수가 줄어들었다고 느끼게 하여 검색이 잘 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광고를 제작한다.

광고는 환상들을 체계적으로 생산하고, 따라서 환멸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며, 아울러 경쟁과 패배, 도취와 우울을 체계적으로 생산한다. 광고의 소통 메커니즘은, 적당하다고 느끼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침내 우리 곁을 떠

23)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66쪽.

24)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41쪽.

나고 있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는 유혹과 결부된 '부족하다'는 느낌을 생산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다.<sup>25)</sup>

포털 서비스 중 가장 중요한 '검색' 서비스에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지면, '바로'는 사용자들을 자사 사이트에 더 오래 붙잡아둘 구실이 생기는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이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기술적으로 '유니콘'과 '바로'의 검색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사용자들은 광고를 통해 퍼진 환상에 의해 진실을 보지 못한다. 인터넷 사용자들은 현재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주저 없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점점 더 쾌락을 느끼지 못하는 무능력에 종속되고 쾌락을 자극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강요"<sup>26)</sup>당하여,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편리하다는 이미지를 선점한 '바로'로 흘러들어간다. 이는 "광고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딘가 자기의 현재 생활방식이 만족스럽지 못한 느낌을 갖도록 만드는 데 있다"<sup>27)</sup>는 광고의 목적에 부합한다.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바로'의 가장 큰 변화는 메인 화면 개편으로, '실시간 검색어'(이하 실검)와 '마이홈피' 서비스에 변화를 줌으로써 카테고리 간소화를 시도한다. 특히 '마이홈피'는 현 '바로'를 자리매김하게 만든 일등공신이지만, "한물간 서비스에 들어가는 인력이 너무 많"(12화)다는, 즉 이익에 비해 소모되는 경제적 손실이 큰 상품은 불필요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를 내세우며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내린다. 포털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주도적인 위치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길라잡이의 공간으로 현 시대의 사용자 욕망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하기에,

25)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노동하는 영혼』,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2, 123~124쪽.

26)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정유리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3, 178쪽.

27) 존 버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최민 옮김, 열화당, 2012, 165쪽.

급변하는 데이터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서비스를 지속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인 행위이다.

차현 마이홈피는 케빈이 없앤 게 아니라 시대에 버려진 거예요.  
(중략) 삶은 움직이고 우리도 그래야 해요. (중략) 매일매일  
많은 것들이 생겼다가 사라지잖아요. 마이홈피는 바로의 빛  
났던 과거이자 잊혀진 영광이에요. (12화)

문제는 ‘마이홈피’ 서비스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지 못했다 해서, “단순히 한물간 SNS가 아니라 한 시대가 기록된 디지털 유산”(12화)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역사와 본질 자체를 상실되고 유예된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우리는 누구인가?’보다 ‘우리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가 더 중요”<sup>28)</sup>하기 때문에, ‘바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시간적으로 미래가 없는, 나아가 역사가 없는 직접적인 현재를 표시”<sup>29)</sup>해주는 메인 화면으로 새롭게 치장한다.

‘실검’ 또한 다음 세대가 원하는 바, 즉 타인의 관심사보다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현상에 맞춰 개편된다. 차현은 실검의 시대가 저물고 있기에, “시대에 버려질 것을 미리 버리”(12화)는 개편의 기본 속성이 곧 ‘바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 설명한다. 현재 사회 구성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포털이 제공한 서비스가 ‘실검’인데, 미래 세대는 “자기 관심만 관심”(12화)을 둘 것이라 판단하여 메인 화면에서 그것의 영역을 줄인 것이다.

28)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정유리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3, 25쪽.

29)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이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43쪽.

검색팀장     실시간 검색어 롤링하자는 의견 받아들여져서 기쁘시겠습니다.  
 배타미       **바로**를 위한 **방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검색팀장     그 방향 덕분에 저희 검색 팀은 팀 분위기 아주 엉망이고요.  
 배타미       어느 한 팀의 득과 실이 제 결정의 기준은 아닙니다.  
 검색팀장     (중략) 참 추진력 있고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생  
 각해보니 그 추진력 뒤편 **항상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이 따랐**  
                       **겠죠?** (13화. 강조는 인용자.)

메인 화면은 포털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가 한눈에 인지될 수 있도록 상품화되어 전시된다. ‘바로’는 메인 화면 개편 이벤트를 통해 사용자들의 참여와 공감을 유도함으로써 대외적으로 포털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 공헌적이며 공익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을 보이거나, 이는 “당장의 광고 매출 손실은 있겠지만 이 정도 손실은 오히려 가치 있는 투자”(13화)라 여기기 때문에 용인될 수 있었다. 기업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수치만을 고려할 뿐, 그 뒤에 희생된 직원들은 고려대상이 아니다.

상품화된 공간으로서 포털은 “상품의 기능을 강조하는 ‘필요’의 원칙보다는 상품 판매 공간의 미학적 세련미를 강조하는 ‘욕망’이 지배”하여 “자본의 문화적 지배전략이 공고화”<sup>30)</sup>되는 전략을 동원한다. 즉 소비공간으로 변모한 포털 공간이 기업의 이윤 재생산 및 확대를 시도할 때 동원되는 것은 스펙터클이다. 이는 ‘외부로 노출되는 볼거리’라는 일차적인 의미를 넘어 “일종의 이미지화된 자본으로서, 특정 목적을 위해 의식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대량생산·소비되는 이미지”<sup>31)</sup>를 가리킨다. ‘바로’는 ‘유니콘’보다 앞서 메인 화면 개편을 추진하여 익숙함·편안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적 자극을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제공했고, 끝없이 새로운 무언가

30)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42쪽.

31)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174쪽.

에 목마른 사용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배타미가 시도하고 진행한 모든 마케팅 전략은 새롭고 참신하고 편리한 ‘바로’의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소비를 자극하고 욕망을 창출하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가려진다. 화려하고 볼거리 넘치는 상업적 스펙터클의 이면에는 시대에 버려진 ‘마이홈피’와 ‘실검’의 역사성이 상실된 채 가려져 있다.

포털은 데이터 사회의 가장 전형적이자 보편적인 사회적 산물로, 새롭게 변모하는 시장 논리를 빠르게 정착하고 인터넷 사용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침투한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 사회의 일원으로 사용자들은 포털 서비스를 이용하며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이용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그들은 필요와 선택에 의해 자율적·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가시적인 강제 행위가 없을 뿐 그들의 일상은 거의 모든 것이 전유되고 상품화되고 있다. 문제는 사용자들이 이에 대해 알아차리지 못할 뿐 아니라, 설사 인지한다 해도 지금의 체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배타미가 ‘유니콘’을 퇴사하며 ‘바로’에서 이뤄내고자 했던 포털윤리강령과 시의적절한 마케팅 전략은 그녀를 점유율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바로’의 영웅으로 스펙타클하게 포장한다. 그 결과 현 사회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민낯은 그녀가 시도했던 전략의 뒷면에 파묻힌 채 결코 드러날 수 없다. 이는 “가장 엄격한, 가장 폭력적인, 가장 냉소적인, 가장 비합리적인 법칙, 즉 경제적 정글의 법칙”<sup>32)</sup>을 가장 충실히 이행하는 공간이 포털의 참모습임을 빈틈없이 숨겨놓는다.

---

32)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노동하는 영혼』,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2, 258쪽.



### 3. 신화적 상상의 허위성

전술했듯, 포털이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검색’이다. 검색은 인터넷의 모든 공간을 연결하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그의 영향력은 갈수록 비대해지고 있다.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에서 포털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선별해 바로 보여주는 검색은 이제 단순한 데이터를 찾고 웹사이트를 탐색하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빌 텐서는 인터넷 사용자가 ‘공포증’과 관련된 검색을 빈번히 하고 있으며, 그 중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검색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밝힌다. 사회공포증은 말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두려움, 심한 경우는 타인의 존재 자체가 두려움이 되는 상황까지 포함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공포증에 대해 지인들에게 털어놓는 대신 검색창을 찾았다는 것, 다시 말해 인터넷이 가감 없이 자신을 표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비밀 털어놓기’ 웹사이트 카테고리가 확산하는 현상을 통해 입증된다고 언급한다.<sup>33)</sup> 사회적 소통 방식에 지대한 변화를 불러온 데이터 사회에서 검색 행위는 그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대변하며, 검색창은 그들의 욕망을 보여주는 “판도라 게이트”<sup>34)</sup>가 되었다.

“물리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생각과 감정은 더 쉽게, 더 편하게, 더 믿을 만하게 공유”<sup>35)</sup>되므로 “사람들은 검색창 앞에서 가장 진실”(1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일정 시간 동안 급상승한 비율이 높은 검색어를 보여주는 서비스”<sup>36)</sup>인 ‘실검’은 동시대 사람들의 관심과 사회적 현상의 흐름을 파

33) 빌 텐서, 『검색의 경제학』, 김원옥 옮김, 21세기북스, 2009, 129~140쪽.

34) 김태규·손재권, 『네이버, 빛과 그림자』, KT문화재단, 2006, 198쪽.

35) 메리 차이코, 『초연결사회』, 배현석 옮김, 한울애플러스(주), 2018, 109쪽.

36) 금준경,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무엇을 남겼나」, 『언론중재』 154, 언론중재위원회.

악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이것은 논란의 여부를 떠나 인터넷 사용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혹은 주목해야 하는 사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언론의 ‘의제 설정’ 기능을 수행하며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현재를 읽어내는 데 유용하다.

배타미      사람들의 하루는 검색으로 시작해 검색으로 끝이 납니다. 낱씨를 확인하고 시간을 절약하고 의식주를 해결하고 간편하게 원하는 정보를 얻으며 평화롭게 중고 거래를 합니다. 시간, 장소, 국적의 구애 없이 이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곳은 이 세상에 단 하나 검색창뿐입니다. 포털 사이트 하루 누적 검색량 최대 4억 3천 건, 1초마다 평균 5천 개의 검색어가 유입됩니다. 1인당 하루 평균 포털 검색 횟수는 63.8회, 인터넷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검색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검색어는 실시간 검색으로 집계됩니다. 지금 현재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많이 검색하고 무엇에 관심 있어 하는지 전부 집계됩니다.  
(1회, 강조는 인용자)

〈검불유〉의 모든 사건의 시발점은 ‘유니콘’이 친정권 세력인 KU 압박에 의해 특정 대선 후보의 불륜관련 ‘실검’을 삭제한 것이다. 이는 ‘포털윤리강령’ 제3조, 즉 “포털은 사익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등 내외부 세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는다.”(2화)에도 위반되는 사건이다. 포털 사용자들은 포털이 누구라도 이용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여 그 활동의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공간이 개방적이고 중립적이며 진보적이며 평등하다고 여긴다. 특히

실검은 “사람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현상 그 자체”(4화)이기 때문에, 국내 포털 점유율 1위인 ‘유니콘’이 자본권력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고 공적 관심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데이터를 임의로 조작한 처사는 사회적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유니콘’ 대표로 청문회에 참석한 본부장 배타미는 “알고리즘 상 순식간에 검색어가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1화)이라 해명하면서도 알고리즘은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실검’의 핵심 시스템인 알고리즘은 “어떤 작업을 이행하기 위해 정확한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는 일련의 규칙(절차)”<sup>37)</sup>라고 정의된다. 포털 시스템은 방대한 데이터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즉 수학적 원리에 따라 작용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운영된다. 알고리즘은 “프로그래머들에겐 수학 문제를 해결할 충분히 상세하고 체계적인 행동지침이므로 정확히 구현(코드로 번역)되는 경우 모든 정확한 인풋에 대해 정확한 아웃풋을 계산”<sup>38)</sup>하기 때문에 포털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검색 시스템에 우선 적용된다. 사용자가 검색창에 원하는 데이터를 입력하면, 포털은 다량의 데이터 속에서 가장 적합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되는 결과물을 판단하여 제공한다. 이에 따른 검색 결과는 수학적 규칙·절서에 의한 것이기에, 절차상 오류가 발생하여 부적절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용자들의 지배적 생각이다.

37) “an algorithm is a sequence of rules that should be performed in an exact order to carry out a certain task.” (OECD, “Algorithms and Collusion -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OECD Roundtable on Algorithms and Collusion, 2017, p.8. <https://www.oecd.org/competition/algorithms-collusion-competition-policy-in-the-digital-age.htm>, 2022.08.31. 최종 검색.)

38) 카타리나 츠바이크, 『무자비한 알고리즘』, 유명미 옮김, 니케북스, 2021, 53쪽.

알고리즘은 특정한 질문에 대답할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서 비롯한 **개발자의 편견을 곧잘 반영**한다. 설명 어떤 정보가 적절한가, 또는 문제를 푸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더라도, 이 또한 **가설을 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심지어 데이터도 사람의 편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데이터를 어디에서 수집하고,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노이즈를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편견이 개입**되게 마련이다.<sup>39)</sup> (강조는 인용자)

루크 도멜은 포털의 실검이 자사 서버에 집계되어 순위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편향성이 반영되어 결코 투명하지 않다는 것에 힘을 실어준다. ‘일련의 규칙’이라 명명하는 알고리즘은 투명하고 객관적이라는 외양을 갖고 있지만, 실상은 개발자의 주관적 선입견과 같은 외부 요소가 반영된 작동원리로 운영된다. 이 시대의 투명성은 “오히려 불투명한 것, 즉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서도 작동시킬 수 있”<sup>40)</sup> 다는 의미로 탈바꿈된다. “의사결정권자들은 복잡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단순화한 인터페이스 아래에 숨기는 것을 핵심 장점으로 여”<sup>41)</sup>기며 배타미가 청문회에서 언급한 것처럼 알고리즘의 세부적인 지침은 철저하게 회사 기밀로 관리된다. 포털 사용자에게 허용된 것은 가시적인 결과물일 뿐, 그것을 생성하는 규칙과 시스템이 운영되는 과정은 독립적이며 객관적이라는 신화로 단단히 둘러싸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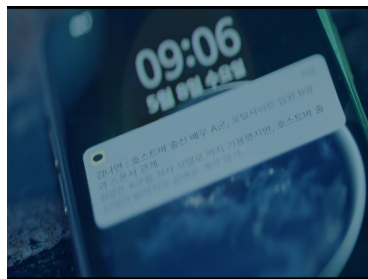
배타미는 세 번 실검의 대상자가 된다. 첫 번째는 유니콘 임원으로서 사측 대표로 청문회에 참석했을 때인데, 워선에서 지시한 대로 ‘유니콘’의 입장만을 전달했다면 실검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성범죄, 즉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올 수 있을 이슈를 대중들에게 공개했기

39) 루크 도멜, 『만물의 공식』, 노승영 옮김, 반니, 2014, 273~274쪽.

40) 루크 도멜, 『만물의 공식』, 노승영 옮김, 반니, 2014, 166쪽.

41) 루크 도멜, 『만물의 공식』, 노승영 옮김, 반니, 2014, 279쪽.

때문에 일반인임에도 그녀는 실검 순위에 오르내린다.



(장면 1) 5화



(장면 2) 5화

두 번째는 “호스트바 출신 배우와 포털사이트 임원 스폰서”(5화)라는 그녀를 둘러싼 불명확한 데이터들이 빠른 속도로 인터넷 영역을 누비며 그녀를 실검의 자리에 올린다.(장면 1) 두 번째 실검은 아무런 인풋도 없이 만들어진 아웃풋으로, 송가경의 남편인 오진우(지승현 분) 개인의 불법적인 거래에 의한 결과였다.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행해진 불법적 거래를 통해 공적 관심사인 실검이 조작됐지만, 사용자들은 이 과정을 알 수 없을 뿐 더러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그저 삼삼오오 모여 앉아 눈으로만 확인되는 실검 결과를 기정사실로 치부해버린다.(장면 2)

- 배타미 (중략) 포털에게 쓸데없이 권력을 쥐여 주니까. 이걸 이어서 지우고 저건 저래서 놔두고, 그 자체가 난 좀 이상해요. 검색어는 사람들이 만드는 건데 그걸 포털이 검열하니까요.
- 차현 검열이 아니라 점검이죠. 누군가에게 유해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이지 않기 위해.
- 배타미 근데 스칼렛은 그 기준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 차현 세상 어디에도 완벽한 기준은 없습니다.

배타미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서비스는 불안전한데 영향력은 지대  
                  하니까. 영향력은 지대한데, 다스릴 법규는 없으니까. 포털이  
                  실검을 삭제하고 조작해도 처벌할 수 없어요. 법이 없어서.  
차현         실검은 포털의 수익을 위한 서비스 중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법규가 없는 겁니다.    (4화. 강조는 인용자)

오진우는 기업형 검색어 조작 업체를 통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일반인 배타미를 실검 대상자로 만들었지만,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실검에 오르내리며 피해를 입은 배타미에게 그저 돈으로 보상을 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유니콘’은 물론이고 배타미가 소속된 ‘바로’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실검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다. “현재로서는 조작된 검색어를 실시간으로 가려낼 수 있는 기술이 없”고(5화), 실검 조작을 덮는 행위가 위법이지만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묵인을 선택한다.

배타미가 세 번째 실검의 대상자가 된 것은 ‘유니콘’ 임원으로서 송가경의 전략이다. 송가경이 배타미의 두 번째 실검이 조작됐다는 사실을 공표한 결과, 실검 조작 은폐를 인정할 수밖에 없던 ‘바로’는 공명정대한 이미지에 타격을 입으며, 민홍주는 대표로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까지 감행한다. 송가경은 두 번째 실검의 실제 배후가 오진우임을 알고 있었지만,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실검 조작 사태를 ‘유니콘’의 이익에 이용한다.

포털이 알고리즘에 의해 작동되는 실검 시스템 전반에 관여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배타미 실검의 경우처럼 어떠한 개입도, 행위도 불가하다고 볼 수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외부적 개입이 가능한 실검 서비스가 포털에게 강력한 권력을 선사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 노출이나 사회적인 물의를 불러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포털 자체적으로 실검을 삭제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포털 기업의 편향적 성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상당하다. 기업으로서 각 포털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검 결과는 포털 기업의 성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그렇기에 포털은 알고리즘이 사용자의 행동을 포털의 성향에 따라 유도하며 이들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특성을 십분 활용한다.<sup>42)</sup> 일반적으로 포털 사용자는 실검의 옳고 그름에 대해 판단하려 하지 않고 “알고리즘 암흑상자의 ‘무지 효과’”<sup>43)</sup>에 빠져 알고리즘 시스템에 신격화된 권위를 부여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검블유>에서 특정 대선 후보의 실검 삭제라는 사건은 상당히 문제적이다. 주인공들의 멜로 서사에 가려진 채 전체 중심 서사에서 한발 떨어져 있지만, 이는 갈등의 기폭제이며 포털 시스템이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알고리즘 개입이 포털 사용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대기업 KU의 실검 조작 개입은 단순히 사회적 질타를 받을 만한 행동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검블유>에서 KU와 현 정권은 알고리즘 운영에 외압이 가능함을 알고 검색 시스템을 장악하려 한다. KU는 친정부적 기업으로 사익을 위해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 KU 장희은 회장은 며느리 송가경을 통해 ‘유니콘’을 산하 기관처럼 다루고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실검 삭제를 지시한다. 알고리즘이 “새로운 세계권력”<sup>44)</sup>이 될 수 있는 근간임을 인지하고 있기에, 포털 기업 ‘유니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에 사회 구성원의 관심사는 집중될 수밖에 없고,

42) 송해엽, 「알고리즘과 뉴스편집」, 『언론중재』 157, 언론중재위원회, 2020, 19쪽.

43) 이광석, 「데이터사회의 형성과 대항장치의 기획」,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36쪽.

44) 크리스토프 드뢰서,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전대호 옮김, 해나무, 2018, 263쪽.

이때 실검은 공적 관심사를 반영한다. 따라서 대선 후보의 실검 삭제는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지만, 장희은은 “검색어 몇 개 지웠다고 나라가 망할 듯이”(1화) 반응하는 사회 구성원을 이해하지 못한다. KU와 정치적으로 반대 입장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갈등의 시발점인 대선 후보의 실검 삭제 사건은 장희은에게 ‘유니콘’의 소유 욕망을 더욱 부추기며 현 정부와 야합하는 촉매로 작용한다.

장희은은 송가경의 친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줬다는 이유로 송가경을 떠나라가 아닌 자신의 소유물로 여긴다.<sup>45)</sup> 사회적 영향력이 상당한 포털을 사적 재원으로 삼아 KU가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 및 조작하기 위해서, 송가경의 능력과 사회적 지위, 즉 ‘유니콘’의 임원이라는 점은 든든한 권력의 지지대가 되어 주기 때문이다. 송가경은 친정이 받은 도움 때문에 학창 시절 정의로웠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악당을 자처하며 KU의 하수인을 선택한다. 하지만 실검을 조작한 사건이 스스로가 일궈놓은 ‘유니콘’의 근간까지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그녀는 “자기 자신을 향해 결단하려는 주관성”<sup>46)</sup>을 표출한다.

|     |  |
|-----|--|
| 장희은 | 득 될 게 없는 유니콘이라면 무너져야지. <b>유니콘 하나 무너뜨리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어?</b>   |
| 송가경 | 유니콘을 못 가진 어머니가 지금만큼 정치적으로 매력적일까요? 온갖 거지 같은 청탁들을 들어주든 안 들어주든 <b>유니콘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권력이니까 그러니까 저도 유니콘도 못 버리셨잖아요.</b> 실검 조작, 뉴스 조작 더 이상 |

45) “넌 송가경이가 네 거 같니? 개는 내가 필요해서 들인 애야. 내 거라고. 너 이혼해서 이 집에서 나가는 거 난 아무렇지도 않아. 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아쉽겠어. 근데 송가경이는 안 돼. 이 집에서 못 나가.” (10화 장희은의 대사 중)

46)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김남시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122쪽.



은 안 됩니다. 시대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의롭고 싶어졌  
냐 물으셨죠? 저 그딴 거에 관심 없습니다. 다만 KU가 어머  
님 것인 것처럼 유니콘은 제 겁니다. 제가 일궈 놓은 유니콘  
에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8화, 강조는 인용자)

KU는 자본권력으로서 위세를 잃지 않기 위해 현 정권의 요구를 들어  
주며 포털 ‘유니콘’이 현 정권에 협조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억압한다. 이  
를 꿰뚫고 있는 대통령은 그녀를 이용해서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은  
밀한 거래를 제시한다. “권력의 형성과 확장을 위해서는 디지털적 영토  
점유, 디지털적 공간 획득이 필수적”<sup>47)</sup>이기 때문에, KU와 현 정부는 담  
합하여 ‘유니콘’을 자본과 정치 세력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부리려는  
것이다.

장희은 저런. 그런 심려가 있으셨네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서명호 **확실하시니까 확실히 보여 주시면 되죠. 장 회장님이.**  
(8화, 강조는 인용자)

장희은 그래서 대통령께선 우리 포털들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중략)  
그럼 참 좋은 제안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포털들,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기세 많이 내죠? **그 전기세 산업용으로 돌리면 연간  
70억 정도가 절감된다고** 한다는데 맞습니까?

나인경 지금은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산업용으로 돌리 경우  
그 정도 비용이 절감됩니다.

케빈 당근은 잘 알겠고 채찍은 뭘니까?

장희은 대통령께선 **실검에 관해서 걱정이 참 많으십니다.**  
(13화, 강조는 인용자)

47)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김남시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157쪽.

서명호 전 장회장님이 절 돕는 건지, 방해하는 건지 가끔 헛갈립니다.  
(중략)  
장희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보다 명분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겁니다. (중략) 포털을 조작하면 논란만 야기시킬 뿐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시대라고요. 보다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14화)

현 정부는 국내 양대 포털인 ‘유니콘’과 ‘바로’에게 정부 요청 시 실검을 삭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라고 요구했지만, 두 포털은 이를 불발한다. 그러자 정부는 장희은에게 ‘유니콘’을 움직일 수 있게 압력을 넣음과 동시에 “실검에 오르게 하는 세력들, 댓글을 선동해 여론을 조성하는 그 세력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주범”(13화)이라 칭하며 조작된 여론을 구별해 내기 위해 포털 사용자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공식적으로 압박한다. 중립적이고 개방적이고 평등하고 진보적인 포털의 외양은 그대로 둔 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외부의 통제와 차별을 자행하려 한 것이다.

KU의 지지를 동력으로 삼아, 현 정권은 거래를 가장한 명령을 함으로써 포털의 능력을 손에 쥐려 한다. 정부는 현재는 결코 억압적인 수단으로 권력이 유지되지 않음을 간과한 채 시대착오적 태도를 견지하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치적 면모를 보인다. 기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익 창출이므로, 정부는 양대 포털에게 수익을 보장해주고 그 대가로 이들이 자신의 입장에 공감하는 응답을 하라고 ‘바로’와 ‘유니콘’을 짓누르려 한다. “권력자가 하려는 것이 권력에 복종하는 자에 의해 그 자신이 하려는 것으로 긍정되거나 내면화되”<sup>48)</sup>어야 진정한 권력을 지닌 것일진

48)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김남시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17쪽.

데, 현 정부의 행태는 “사용자 권한 강화라는 명분과 철저한 정보 통제라는 도구를 혼합하여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부추기는 동시에 기타 꺾끄러운 부분을 숨”<sup>49)</sup>기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 4. 결론

방대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사회, 정치, 경제 등 사회 구성원의 모든 일상에 변화를 가져왔다. 여기에 가장 크게 일조한 것이 인터넷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이어주는 포털이다. 스마트 기기를 가진 사회 구성원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하루에도 수십번씩 포털을 통해 인터넷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인터넷 사용의 첫 출발점으로서 포털은 현재 사회 구성원의 일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회적 산물로 읽을 수 있다.

〈검블유〉는 포털(기업)을 서사적 배경으로 내세우며 양대 포털 ‘유니콘’과 ‘바로’의 점유율 경쟁을 중심으로 한 내러티브를 선보인다. ‘유니콘’에서 ‘바로’로 이적한 배타미를 주축으로 ‘바로’는 점유율 전쟁에서 1위를 탈환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한다. 그녀는 과감하게, 때로는 팀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바로’에 변혁의 바람을 불고 온다. 그녀가 의도한 대로 점유율 1위가 되는 과정을 통해 ‘바로’의 시스템이 포털 사용자의 일상을 장악하게 되는데, 문제는 포털 사용자들이 그녀가 보여준 스펙터클한 가시적 성과에만 주목하여 시스템의 숨겨진 이면을 놓치기 쉽다는 점이다. 배타미를 진취적·진보적·발전적인 여성으로 보이게 만든 일련의 마케팅

49) 에드 핀, 『알고리즘이 욕망하는 것들』, 이로운 옮김, 한빛미디어, 2019, 180쪽.

전략의 뒤에는 철저하게 감춰지고 은폐되어 잔혹하게 작동하는 경제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포털 사용자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즉 포털을 움직이는 시스템이 데이터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배양되기 적합한 자본 체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포털에서 일상을 소비한다.

수학적 원리와 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알고리즘은 포털의 핵심적 서비스인 '검색'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표면적으로 투명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외부의 편견이 개입된 여지가 없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자의 편향과 가치, 나아가 그것이 작동하는 포털 기업의 성향이 끊임없이 주입된다. 때문에 배타미가 실검 대상자가 된 경우도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질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데이터 사회의 권력이 데이터의 수집, 분석, 통제 여부에 달렸음을 알고 있는 KU와 현 정부는 자신들의 권력기반을 위해 '포털'의 시스템을 소유하려 한다는 것이다. 포털은 이 시대 통치의 근간을 비가시적인 공간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객관성, 공정함이라는 외양으로 미화시켜 최적의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한다. 이는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지만, 정치적 상황은 여전히 전근대적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퇴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검블유〉는 포털(기업)이라는 공간을 전면화하여,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보편적 사회적 구성물인 포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헤게모니를 다양한 내러티브로 재현한다. 여성주의 관점에서는 배타미와 같은 캐릭터의 등장은 클리셰적 여성 캐릭터에서 탈피하며 괄목한 만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멋드러진 여성 캐릭터를 앞세워 그 뒤에서 철저하게 은폐된 채 교묘하게 작동하고 있는 포털 시스템의 모순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결탁이 가능한 우리 사회에서 이들을 감시하는 시스템이 부재하면, 이들은 사적 목적을 위해 시시때때로 사회 구성원을 감

시하러 시도할 것이다. 더 은밀하고 더 보이지 않는 공간에서 유명처럼 시스템이 작동되는 사회로 내몰리지 않도록 데이터 사회의 신질서를 온전히 읽어내야 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권도은 극본, 정지현·권영일 연출, tvN, 16부작.

### 2. 논문과 단행본

강병준·류현정, 『구글 vs 네이버 검색대전쟁』, 전자신문사, 2008.

금준경,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 무엇을 남겼나」, 『언론중재』 154, 언론중재위원회, 2020, 68~79쪽.

김동원, 「플랫폼 담론과 플랫폼 자본」,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75~97쪽.

김미라, 「포스트페미니즘 드라마의 서사와 정치적 함의」, 『한국극예술연구』 65집, 한국극예술학회, 2019, 305~348쪽.

김숙현, 「포스트모던한 여성 이미지와 로맨스의 갈등과 타협」, 『한국영상학회 논문집』 17, 한국영상학회, 2019, 23~38쪽.

김성일, 「산업사회와 데이터사회에서 작동하는 물신주의」,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98~120쪽.

김위근, 「포털 뉴스서비스와 온라인 저널리즘의 지형: 뉴스 유통의 구조 변동 혹은 권력 변화」, 『한국언론정보학보』 66, 한국언론정보학회, 2014, 5~27쪽.

김태규·손재권, 『네이버, 빛과 그림자』, KT문화재단, 2006.

루크 도벨, 『만물의 공식』, 노승영 옮김, 반니, 2014.

메리 차이코, 『초연결사회』, 배현석 옮김, 한울엠플러스(주), 2018.

백선기·최민재·김위근, 『인터넷 공간의 진화와 미디어 콘텐츠』,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빌 탠서, 『검색의 경제학』, 김원옥 옮김, 21세기북스, 2009.

송해엽, 「알고리즘과 뉴스편집」, 『언론중재』 157, 언론중재위원회, 2020, 18~31쪽.

에드 핀, 『알고리즘이 욕망하는 것들』, 이로운 옮김, 한빛미디어, 2019.

엘리 프레이저, 『생각 조종자들』, 이현수·이정태 옮김, 시공사, 2011.

이광석, 「데이터사회의 형성과 대항장치의 기획」, 『문화과학』 87, 문화과학사, 2016.

26~56쪽.

- 이무용, 『공간의 문화정치학』, 논형, 2005.
- 존 버거, 『다른 방식으로 보기』, 최민 옮김, 열화당, 2012.
- 존 피스크·존 하틀리, 『TV 읽기』, 이익성·이은호 옮김, 현대미학사, 1997.
- 최효찬, 『일상의 공간과 미디어』,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7.
- 카타리나 츠바이크, 『무자비한 알고리즘』, 유명미 옮김, 니케북스, 2021.
- 크리스토프 드뢰서, 『알고리즘이 당신에게 이것을 추천합니다』, 전대호 옮김, 해나무, 2018.
-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노동하는 영혼』, 서창현 옮김, 갈무리, 2012.
-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봉기』, 유충현 옮김, 갈무리, 2012.
- 프랑코 베라르디 '비포', 『프레카리아트를 위한 랩소디』, 장유리 옮김, 난장, 2013.
- 한병철, 『피로사회』, 김태환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2.
- 한병철, 『권력이란 무엇인가』, 김남시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이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 한병철, 『타자의 추방』, 이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7.

### 3. 기타 자료

- 박주연,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다 걸크러쉬야?>, 『일다』, 2019.08.16.
- 박현숙, <‘검블유’ 리얼 포털 업계 종사자 “포털의 본질 짙은 에피소드에서 감동”>, 『스포츠헤럴』, 2019.07.02.
- 신규진, <여성이야기를 중심으로… 주목받는 ‘젠더 미러링’ 콘텐츠, 논란은?>, 『동아일보』, 2019.07.30.
- 이로사, <주류 서사를 그대로 뒤집었더니, 본의 아니게 ‘여탕’이 됐네>, 『경향신문』, 2019.06.21.
- 이수연, <‘검색어 WWW를 입력하세요’ 여심을 사로잡은 드라마!>, 『스타뉴스』, 2019.06.14.
- 하재근, <여성주의 열풍, 한국 드라마를 바꾸다>, 『시사저널』, 2019.07.27.
- 한숙인, <‘남자친구’ 박보검 VS ‘검블유’ 장기용, 페미니즘 남주의 진화>, 『셀럽미디어』,

2019.06.28.

황진미, <드라마로 먼저 온 한국 사회의 미래>, 『한겨레』, 2019.06.21.

OECD, “Algorithms and Collusion - Competition policy in the digital age”,  
OECD Roundtable on Algorithms and Collusion, 2017, p.8.  
(<https://www.oecd.org/competition/algorithms-collusion-competition-policy-in-the-digital-age.htm>) <http://www.internettrend.co.kr/trendForward.tsp>



## Abstract

### Spatial Politics of the Portal in the Data Society - Focusing on 〈Enter a Search Term WWW〉

Kim, Min-Yeong(Chungang University)

We go through portals to access the plethora of data on the Internet. A portal is where members of the data society enjoy and use various services of the portal in line with the trends.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 narrative background of 〈Enter a Search Term WWW〉 is a portal (company), this study examines the meaning of the portal space, the most popular and universal social product of the data society.

In 〈Enter a Search Term WWW〉, Unicorn and Baro, the two largest Korean portal companies, compete fiercely to attract more users to their services. Bae Ta-mi, who moved to Baro, tries strategies such as advertising, recruiting webtoon writers, and reorganizing the main screen to win the market share competition. Focusing on the background to the spectacular portal image, we can understand the hidden operating principle of the portal. In other words, the portal is permeated with neoliberal realities as it is rapidly incorporated into the new economic system. Also, the most important of portals' many services is the 'search'. Portals provide a search engine to satisfy users through a system based on their own algorithm. In "Enter a Search Term WWW," the starting point of conflict is when a leading presidential candidate removes a real-time search word. This shows that the mathematical principle of algorithms is not objective and transparent and that it was constantly being deceived by politics and capital.

〈Enter a Search Term WWW〉 shows us the influence of portals as a social construct. It is impossible to live today without accessing the Internet. Therefore, members of society should try to gain the wisdom to

44 대중서사연구 제28권 3호

see the hidden operating principles behind the portals (companies)  
connecting the internet and our world.

**(Keywords: data society, portal, space, algorithm, Enter a Search Term WWW)**

■ 논문투고일 2022년 09월 26일

논문심사일 2022년 10월 11일

수정완료일 2022년 10월 21일

게재확정일 2022년 10월 11일